

9世紀 在唐 韓國人에 대한 考察

—入唐求法巡禮行記를 中心으로—

李 永 澤

A Study on the Koreans resided in T'ang China in the
9th century A. D. , —Primarily through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Lee, Young-Taek

〈目 次〉

- | | |
|---------------------|-------------------|
| Abstract | Ⅲ. 在唐 韓國人의 人性的 特性 |
| I. 序 言 | Ⅳ. 結 言 |
| Ⅱ. 在唐 韓國人의 居住分布와 生業 | 參考文獻 |

Abstract

“The Ennin’s Diar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written by a Japanese buddhist monk, is highly estimated because of its material rareness which has not been discovered in the authentic history as well as of its just and objective description of the Koreans resided in T’ang China at that time.

This paper was planned to survey the forgotten historical aspect of the Koreans who had stretched out to foreign countries as an ocean-oriented nation, and tried to find out the residence distribution, occupation and personal character of the Koreans appeared in “The Ennis’s Diary”.

I. 序 言

「入唐求法巡禮行記」(以下「行記」라고 略稱한다.)는 日本의 請益僧 圓仁(諡號 慈覺大師, 793~864 A. D.)이 承和 遣唐朝貢使節團을 따라 入唐, 그 곳에서 滯留한 후 本國으로 歸國하기까지(838年 6月 8日부터 847年 12月 14日)의 日記이다. E.O. Reischauer 教授는 이 「行記」를 Marco Polo의 「東方見聞錄」, 玄奘의 「大唐西域記」와 더불어 世界 3大旅行記 中의 하나로 꼽고, 그 중에서도 「行記」의 歷

史資料的 價値를 가장 높이 評價하고 있다.¹⁾ 이 「行記」를 資料로 하여 佛敎에 관한 것은 말할 것 없고, 韓·中·日 交涉, 唐代的 政治·制度·風俗·言語·藝術·音樂 및 曆學에 이르기까지 그 研究가 廣範圍하게 進陟되고 있음은 「行記」가 갖는 歷史資料的 價値가 큼을 立證한다.

Marco Polo 와 玄奘의 旅行記 以外에도 法顯(399~412 A. D)의 「歷遊天竺記傳」과 「法顯傳」, 義淨(635~713 A. D)의 「南海寄歸內法傳」(4卷), 「大唐西域求法高僧傳」(2卷), 또 853年에서 858年 사이에 入唐歸國한 日僧 圓珍의 「行歷抄」, 三井寺의 日僧 成尋(1011~1081. A. D)의 「參天台五台山記」(4卷) 등 中國旅行記는 比較的 많다. 그러나 이들 旅行記 보다 「行記」의 價値가 더 크다고 하는 까닭은 圓仁의 日記에서는 9世紀의 中國庶民生活이나 佛敎事情이 생생하게 記錄되어 當時의 中國側資料로써는 알 수 없었던 事實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行記」研究의 先驅者 岡田正之는 이 日記에 의하여 中國史料에는 없었던 點이 새로 發見되거나 혹은 보다 더 確實하게 된 點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첫째로는 中唐以後 政界에 一大勢力을 잡고 있었던 宦官에 관한 記事로서 이는 正史에 煙滅不傳된 唐朝의 裏面史를 밝힌다는 點이고, 둘째로는 會昌의 廢佛事件에 관한 생생한 體驗記로서 이는 佛敎史上 높은 資料的 價値가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行記」가 특히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그것이 中國에서 살고 있던 韓國人의 生活에 관한 생생한 體驗을 記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圓仁의 日記에 登場하는 韓國人은 한 日本의 求道僧이 見聞한 範圍內의 限定된 體驗과 限定된 時期와 空間의 韓國人에 不適當하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一般적으로 흔히 內陸指向的으로서만 알려져 왔던 韓民族의 잊혀졌던 歷史活動의 또 다른 一面, 즉 海外에 雄飛하여 크게 活動하던 海洋民族으로서의 進取的이고 肯定的인 民族史의 한 斷面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本稿가 하필이면 「行記」에 登場하는 韓國人을 追求하여 보려는 것은 他記錄에서 發見할 수 없는 「行記」의 資料로서의 稀貴性 때문만은 아니다. 그 또 다른 理由는 「行記」의 著者인 日僧 圓仁이 直接 보고 들은 當時의 韓國人에 대하여 아무런 偏見이나 先入感 없이, 다만 있었던 事實을 있었던 그대로 修飾이나 誇張도 없이 淡淡히 記述하고 있는 그 客觀性과 公正性에 있다.

이 小稿는 「行記」에 등장하는 9世紀 當時의 在唐 韓國人에 관하여, 첫째로 그들의 活動의 根據地인 居住地域의 分布와 그들의 生活相을 엿보게 하여 주는 生業에 관하여 살펴보고, 둘째로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人性的 特性)에 관하여 考察함을 目的으로 한다.

Ⅰ. 在唐 韓國人의 居住分布와 生業

한 日僧의 中國旅行記인 「行記」에 登場하는 韓國人의 數는 中國人과 맞먹을 정도로 많으며, 個人的으로 혹은 集團的으로 그들이 居住한 地域은 首都 長安을 비롯하여 中國 全域에 分布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行記」에 나타난 그들의 集團的 居住地域을 整理하여 보면 首都圈 以外에도 크게 南·北의 두 地域으로 區分할 수 있다. 즉 그들은 南으로는 大運河·淮水流域의 內陸地域과, 北으

1) E.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1955. pp. 1~19.

(田村完誓譯, 世界史上の 圓仁——唐代中國への旅——實業之日本社, 1963. pp. 1~16)

로는 中國의 沿岸을 南北으로 連結하는 沿岸地域 一帶에 걸쳐 集團의으로 定住하고 있었다. 이제 이 두 地域에 居住하고 있었던 韓國人의 居住分布와 生業에 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 大運河·淮水域의 韓國人

圓仁 一行이 838年(開成 3年)²⁾ 7月 2日 中國에 첫 발을 드딘 곳은 海岸과 楊州를 잇는 運河口 附近에 位置한 東梁豐이다. 이 곳으로부터 北行 15里쯤 되는 곳에 있던 「鎮家」를 지나 日本의 遣唐使 節團 一行이 中國政府와 처음으로 正式交涉을 갖게 된 如皋鎮까지의 沿邊一帶에 韓國人(新羅人)³⁾이 居住한 事實에 關한 直接的인 記錄은 「行記」에서 發見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곳 中國官吏가 多數의 日本의 入唐朝貢使 一行을 韓國人으로 誤認한 것으로 미루어 이 地域一帶에 多數의 韓國人이 居住하였거나 來往이 빈번하였음을 示唆하여 준다.⁴⁾ 當時의 如皋鎮 一帶는 有名한 鹽生産地로서 3.4隻 혹은 4.5隻수 連結된 鹽積載船舟가 數10里나 끊임 없이 運送되고 있었다는 記事나⁵⁾ 楊州府 부근 運河沿岸 住民의 生業이 鹽業·養水鳥業·賣蘆業 등이었으므로 이 一帶에 居住하던 韓國人들도 그와 같은 生業에 從事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行記」에는 大運河·淮水流域의 要地의 하나인 楊州府에 王請과 王宗이라는 對日貿易商業에 從事하는 韓國人들이 있었음이 記錄되고 있다.⁶⁾ 王請은 日語를 잘 할 줄 아는 貿易商人이며 王宗은 日本政府가 圓仁을 援助하기 위하여 唐에 派遣한 日僧 性海의 書信을 圓仁에게 傳하여 주기도 한 貿易商人이었다.

楊州府에는 이들 以外에도 다른 많은 韓國人의 海上貿易商人이 있었고 對日 海上貿易으로 巨富가 된 韓國人 貿易商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理由로 Arther Waley는 「The Life and Time of Po Chō-i 772~864 A.D.」라는 論文(P. 60)에서 白居易의 詩文을 모조리 買占하여 간 한 新羅人이 있었음을 傳하여 주며, Alexander C. Scope는 「T'ang Ch'ao Ming Hua Lu(唐朝名畫錄), —The Famous Painters of the T'ang Dynasty, Archeives of the Chinese Art Society of America 4」(p. 14)에서 當時의 著名한 畫家의 作品 數10點을 楚州와 楊州地方에서 高價로 買入하여 歸國한 新羅商人이 있었음을 記錄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當時의 楊州는 長江下流地域의 經濟·政治·文化의 中心地이었다.⁸⁾ 이 곳에는 新羅人 貿易商 뿐만 아니라 波斯國·占婆國 등 西方商人들도 居留하던 國際貿易港의 中心地이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이들 西方商人들의 活動의 範圍는 楊州의 東쪽과 北쪽으로 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韓國人들은 이

2) 以下 특별한 경우 以外에는 모든 年代는 西曆으로 換算하여 表記한다.

3) 以下 本文에서는 高麗人, 百濟人과 특별히 區別하는 경우가 아니면 新羅人을 「韓國人」과 同一語로 使用한다.

4) 「行記」 837年 7月 20日條 「…今日州使來, 始充生料, 從先尊新羅國一使, 而與本國處, 而今年朝貢使新羅國使, 而相勞疎略, …」

5) 同書, 838年 7月 21日條 「鹽官船, 積鹽, 或三四船, 或四五船, 集結續編, 不絕數十里」

6) 同書, 839年 1月 8日條 「新羅人王請來相看, 是本國弘仁十年, 流著出州國之唐人張覺濟等同船之人也, 問漂流之由, 申云, 爲交易諸物, 離此過海, 忽遇惡風, 南流三月, 流著出羽(州)國……頗解本國語」

同書, 846年 4月 27日條 「廿七日 新羅人王宗, 從揚州將日本國, 性海法師書來…」

7) E.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 Y. 1955. p. 261.

8) 武仙鄉, 隋唐時代揚州的輪廓에 「隋唐時代爲供官僚的俸祿及支援西方邊方的消費, 都依伏江淮的財富的運送」이라 하였다. 金文經, 在唐新羅人의 集落과 그 構造, 韓國史學論叢, 1969. pp. 107~8에서 再引用.

9) 行記, 839年 1月 7日條 「得修此閣, 彼期(斯)國出千貫錢, (占)婆國人捨二百貫」

곳 楊州를 據點으로 하여 알려진 限의 世界的 東쪽 끝까지 貿易活動을 擴張하였다. 「行記」에 의하면 中國의 東部·韓國 및 日本은 大部分 韓國出身의 손에 의해서 販路의 對象으로 되었다고 본다.¹⁰⁾

「行記」는 楚州에도 韓國人의 集團居住地域인 新羅坊이 있었음을 記錄하고 있다.¹¹⁾ 楚州는 淮河下流에 位置하여 大運河와 淮河를 이어 주는 經濟的·軍事의 要地인 同時에 淮·泗·汴·蔡·穎·渦河 등 수 많은 河川이 直接·間接的으로 楊州를 지나 楊子江에 흐르는 故로 楚州는 水上運送의 中心地이기도 하였다. 이 곳으로부터 南으로는 楊州를 지나 楊子江으로 나아가서 蘇州·杭州·明州 등의 國際貿易港으로 通하며, 西로는 渦河·汴河를 거슬러 올라가서 中原으로까지 進出할 수 있는 要地이다. 이 楚州와 新羅本土와의 航路는 잘 整備되어 있었던 故로 이 航路를 따라 韓國人의 來往이 不絶하였던 듯하다. 즉 韓半島의 西·南海岸의 多島海를 따라 北上, 黃海를 橫斷하여 山東半島의 南端 赤山浦에 이르는 航路 즉 「赤山航路」가 開拓되어 있었으며, 다시 赤山浦 附近으로부터 沿岸을 따라 楚州에까지 이르는 所謂 北路經由의 南航路가 있었다. 「行記」는 이 航路를 잇는 要所 마다에 韓國人 村邑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楚州는 이들을 連結하는 內陸의 中心部로서 많은 韓國人들이 常住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日本의 入唐朝貢使節船團을 案内하였던 新羅人 譯語 金正男이 日本 朝貢使一行의 歸國을 위하여 韓國人 所有의 海舶 9隻과 「謠海路者」 60餘人을 一時에 動員 雇傭할 수 있었던 곳도 바로 이 楚州이었다.¹²⁾

楚州의 新羅坊은 韓國人 薛詮이 惣管(長)으로서 그 곳의 行政을 管掌하고 있었다. 이 곳의 韓國人 譯語 劉愼言은 후에 薛詮의 뒤를 이어 惣管이 된 人物이다. 그는 唐으로부터 強制追放된 圓仁一行의 楚州에서 山東에 이르는 陸路旅行의 安全을 行路에 點在한 韓國人 社會에 依賴하는 書信을 圓仁에게 써 주었다는 記錄이 「行記」에 보인다.¹³⁾

이는 楚州에서 山東에 이르는 陸路 沿岸 一帶에 點在한 韓國人 社會에까지 劉愼言의 影響力이 미치고 있었음을, 혹은 唐土內의 韓國人 社會 相互間의 緊密한 協同關係 乃至는 同族意識이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楚州新羅坊의 惣管 劉愼言은 山東의 赤山地方 韓國人 社會의 押衝 張詠과도 緊密한 連絡을 取하고 있으며, 楚州와 山東의 赤山灣을 來往하는 韓國商船이 不絶하여 當時의 韓國人들은 이 두 地域의 距離感을 거의 느끼지 않는 듯 하였다. 楚州新羅坊 中에는 船員과 稍工(梢工·造船技術者) 뿐만 아니라 韓國人의 船主와 船舶도 있었다.¹⁴⁾

圓仁은 漣水에도 新羅坊이 있었고, 楚州처럼 韓國人의 惣管에 의하여 管掌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¹⁵⁾ 漣水는 楚州에서 100리도 채 못되는 淮河下流에 所在하여 淸海鎮 大使 張保臯와 鄭年이

10) O. E.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p. 256.

11) 行記, 845年 7月 3日條「得到楚州, 先入新羅坊, 見惣管當州同十將薛, 新羅譯語劉愼言, …」

12) 行記, 839年 閏正月 4日條「依金正男請, 爲令修理所買船, 令都平船工鍛工等卅六人, 向楚州去」
同書, 839年 3月 17日條「十七日運隨身物, 載第二船, 與長判官同船, 其九隻船, 分配官人, 各令船頭押領本國水手外, 更雇新羅人謠海路者, 六十餘人, 每船或七, 或六, 或五人, 亦令譯語正男商可留之方便, 未定得否」

13) 同書, 845年 7月 8日條「八日發, 劉譯語有書狀付送登州, 已來路次, 所囑安存與作主人等事…」
同書, 845年 7月 9日條「九日齊時到漣水縣, 縣屬泗, 緣楚譯語有書付送漣水鄉人, 所囑令安存, 兼計會留釣之事, …」

14) 行記, 847(大中元年) 6月 18條「十八日晚際乘楚州新羅坊王可昌船」

15) 同書, 845年 7月 9日條「九日齊時到漣水縣, …先入新羅坊, 坊人相見, 心不慙慙, 就惣管等, 若覓識認, 每事難易…」

中國에 있었을 때의 緣故地이었던 것으로 推測된다.¹⁶⁾ 譯語 金正男이 楚州에서 雇傭한 韓國人 船員 中 數名은 이곳 漣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¹⁷⁾ 圓仁은 이 곳에 留宿하지 않았으므로 漣水의 新羅坊에 관하여 仔細한 것은 傳하지 않지만, 그 地理的 條件으로나 「惣管」이라는 稱號로 보아 漣水에 楚州와 거의 同數의 韓國人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生業도 楚州의 그들과 類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 沿海岸地域의 韓國人

위는 內陸地方에 集居한 韓國人에 대하여 살펴 보았거니와, 이제는 山東에 이르는 沿海岸地域에 點在한 韓國人의 居住地와 生業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日本을 向하여 出帆한 日本朝貢船과 作別하고 圓仁 一行이 下船한 곳이 海州 東海縣 宿城村 沿岸이었다. 그들은 이 沿岸에서 密州로부터 楚州로 向하는 木炭運送船에 탄 韓國人 10餘名을 만났으며 그들의 親切한 案内로 沿海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森林속의 宿城村에 引導하였는데, 그 村落은 韓國人村落이었고 村長 王良도 韓國人이 었다¹⁸⁾ 이 마을 周邊에 取鹽處가 있었고¹⁹⁾ 이 一帶가 森林地帶이며 木炭運送 船員들이 이 村落을 잘 알고 있었던 點으로 보아 이 곳 住民의 生業은 鹽業과 木炭生産 乃至는 木炭運送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圓仁 一行의 送還을 위한 驢 한匹도 求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마을이 富村은 아닌 듯하다.²⁰⁾

「行記」는 密州의 東쪽 沿岸의 大珠山 附近에도 韓國人의 居住地가 있었고 그 곳에 船舶修理所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大珠山은 羅針盤이 아직 發見되지 않았던 當時에 航海의 重要한 指標로 된 듯하다.²¹⁾ 大珠山 駝馬浦 北쪽 靑島의 西南인 現 勞山灣 附近에도 柁家店(庄)이라고 하는 韓國人居住地가 있었고 그 곳 住民 中에는 山東의 沿海岸으로부터 楚州地方에 까지 自己所有의 船舶으로 海運業에 從事한 韓國人들이 있었다.²²⁾ 「行記」에는 登州縣 牟平縣 當(鄉)陶村·邵村浦·長淮浦·乳山浦 等地에도 韓國人 居住地가 있었음이 記錄되고 있는데 이들 居住地의 中心의 하나가 乳山浦인 듯하다.

「行記」839年 4月 26日條에 「已時到乳山浦泊船停住, …未時新羅人卅餘, 騎馬乘驢來云, …」이라 하여 이 一帶에 居住한 韓國人들이 乳山浦에 集結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며 騎馬乘驢者 30餘名이 있었음

16) 唐書 卷220 東夷列傳 第145 「有張保臯, 鄭年者, …年飢喪客漣水, …」

17) 「行記」, 839年 3月 25日條 「未時到徐州管内漣水縣南, …緣第一船新羅水手稍功下船未求, 諸船爲此拘留, 不得進發, …」

18) E. O. Reischauer, Ennin's Diar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The Ronald Press Co. N. Y., 1955. p.104. Note 445. Su-Sh'eng.

「行記」, 839年 4月 5日條 「爲齊時尋水入深澗, 不久之間, 有聞多人聲, 驚惶望見, 有一船到泊船處, 拾有餘人, …船人等云, 吾等從密州來, 船裏載炭, 向楚州去, 本是新羅人, 人數十有餘, …中時到宿城村新羅人宅, 窺村老(長)王良書云, 和尙到此處, 自稱新羅人, 見其語, 非新羅語, 非大唐語, …」

19) 同書, 829年 4月 7日條.

20) 同書, 835年 4月 6日條.

21) 同書, 839年 4月 1日條 「…官人祭祀之後, 共謀渡海, 新羅水手申云, 自此北行一日, 於密州管東岸, 有大珠山, 令得南風, 更到彼山, 修理船, 即從彼山渡海甚可平善, …」

22) 同書, 847年 4月 26日, 27日, 「廿六日到江南柁家店, 訪金珍船, 其船已往赤山浦訖, …廿七日修書柁家店, 報楚州劉惣管訖, 更雇船主王可昌船」

은 그 중에는 乳山浦 附近 以外的 奧地에서 온 定着農民도 있었음을 示唆한다. 日本의 入唐朝貢使 節船團이 歸航에 必要한 過海糧을 調達한 곳도 乳山浦였고 圓仁의 唐土에서의 滯留가 不法인데도 이를 自信있게 容諾한 邵村勾當 王訓 등의 態度²³⁾는 이 地域 韓國人 社會의 富力과 어느 程度의 治外法權的 自治力이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文登縣 淸寧鄉 赤山村(登州府 文登縣 石城[島]灣)은 乳山浦와 함께 山東半島 沿岸 一帶에 點在한 在唐 韓國人 社會의 一大 中心地이었음을 「行記」는 말하고 있다. 當時 山東의 赤山灣은 既述한 淮河流域의 楚州·漣水·楊州 등의 新羅坊과 直結되는 海洋貿易의 要地이며 羅·唐 間을 連絡하는 外交的 要地이기도 하였다. 즉 「行記」에 의하면 淸海鎮大使 張保臯가 派遣한 大唐賣物使 崔兵馬司(使)는 2隻의 交關船(易貿船)을 引率하여 赤山浦 附近에 所在한 赤山法花院에서 張保臯가 擁立한 新羅의 神武王을 冊封하기 위하여 唐朝가 派遣한 唐使 靑州兵馬使 吳子陳 등 30餘人和 會合하였으며²⁴⁾ 大唐賣物使 崔兵馬司(使)의 交關船은 赤山浦에서 다시 乳山浦로 나와 河南의 楊州 사이를 來往하고 있었다.²⁵⁾ 唐의 使臣 一行이 新羅를 向하여 出帆한 곳도 이 赤山浦이었다. 赤山法花院은 張保臯에 의하여 刱建되었으며 新羅通事押衙 張詠·林大使 및 邵村의 勾當 王訓 등의 3인에 의하여 管理되고 있었다.²⁶⁾ 이 중의 林大使가 누구인가는 不明하나 그를 張保臯의 美稱이라고 보는 見解도 있다.²⁷⁾ 이 寺院에 839年 11月 19日부터 翌年 1月 15日까지의 講會에 每日 40名 內外の 男女道俗·老少尊卑·有緣施主 등이 모였고 講筵 最終 2日間은 250名과 200名이 各各 모였다고 하니 2日間에 적어도 450名이 모인 셈이다.²⁸⁾

또 「行記」에는 赤山 附近의 眞莊村·鄧村·望海村·石島·莫耶島·桑島·五壘島 등의 地名이 보이며 그 곳에도 運送業·商業·農業·僧侶·地方官吏 및 造船業²⁹⁾ 등 多様な 生業에 從事하고 있었던 韓國人이 살고 있었다.

以上으로 「行記」에 斷片的으로 記錄되어 있는 바를 整理하여 在唐 韓國人들의 居住地域과 生業을 大略的으로 살펴본 셈이다. 韓國人들은 南으로 楚州 新羅坊을 中心으로 한 大運河·淮河流域으로부터 北으로는 赤山을 中心으로 한 山東半島 東南쪽 沿海岸과의 二地域을 連結하는 沿岸 一帶의 要地에 集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곳만이 그들의 居住地域은 아니었다. 圓仁은 赤山村으로부터 常

23) 同書, 847年 4年 29日條「廿九日, 北風吹, 令新羅譯語道玄作謀, 畜(留)在此間, 可隱便否, 道玄與新羅人商量其事, 却來云, 可穩便」

同年 5月 1日條「遣買過海糧, 於村勾當王訓之家, 兼問留此村之事, 王訓等云, 如要住者, 我專勾當, 和尚不用歸本國」

24) 同書, 839年 6月 28日條「廿八日大唐天子, 差入新羅慰問新即位王之使, 靑州兵馬使吳子陳, 崔副使, 王判官等, 冊餘人登來, 寺裏相看, 夜頭張寶高遣唐賣物使崔兵馬司來寺問慰」

25) 同書, 840年 2月 15日條「…十五日問崔押衙船從揚州來, 在乳山浦…」

26) 同書, 839年 6月 7日條「…即文登縣淸寧鄉赤山村, 山裏有寺, 名赤山法花院, 本張寶高初所建也, …當今新羅通事押衙張詠, 及林大使王訓等專勾當」

27) 足立喜六, 躑入良道補注, 入唐求法巡禮行記 I, 東洋文庫 157, 平凡社, 昭和 52年, 東京, p. 180. 注(3)參照

28) 「行記」, 840年 正月 15日條「此日, 山院法花畢, 集會男女, 昨日二百五十人, 今日二百來人, 結願已後, 與集公衆, 授菩薩戒, 齊後皆散去」

金文經, 赤山法花院의 佛教儀式, 史學誌, 第1輯, 1967. pp. 54~55.

29) 「行記」, 847年(大中元年) 正月條「會昌七年歲次丁卯正月中, 改爲大中元年, 張大使, 從去年冬, 造船, 至今年二月功畢, 專撰載圓仁等發送歸國」文中的「張大使」는 張詠을 말하며 그가 만든 船舶은 大洋을 航海할 海舶이다.

州府 長山縣에 이르는 公路邊에도 「新羅館」과 「新羅院」이 있었음을 記錄하고 있다.³⁰⁾ 이는 圓仁이 旅行하지 않았던 中國의 그밖의 많은 地域에도 韓國인들이 個人的으로 혹은 集團的으로 居住하였을 것임을 짐작케 하여 준다.

大運河·淮河流域과 山東의 赤山地域 사이에 分布된 南·北 두 地域의 韓國人 社會는 서로 孤立된 것은 아니었다. 淮河 下流地域과 山東을 잇는 沿岸의 材鄉 사이에는 韓國商船의 來往이 不絶하여 그들에게는 南·北의 距離感이 거의 없었던 듯하다. 그들의 海上活動의 範圍는 赤山을 起點으로 韓半島의 西南海岸을 따라 莞島를 經由하여 日本의 北九州에 까지, 南으로는 楊子江 以南의 諸港에 까지 이르고 있었다.

그들의 生業은 地方官吏·僧侶·農業 등을 包含하여 多樣하였으나, 船主, 船員, 船舶의 修理와 建造, 通譯 및 外國旅行者를 위한 各種의 奉仕業 등 주로 海事에 關聯된 職業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韓國人 貿易商들은 首都 長安과 緊密한 通信網을 形成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單純한 海上運送만이 아니고 唐의 內陸과 長安에까지 商品販路도 開拓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들이 單純한 海上移動者가 아니고 中國에 뿌리를 박고 살던 恒久的 定住者였음은 注目될 事實이다.

Ⅲ. 在唐 韓國人의 人性的 特性

지금까지 在唐 韓國人의 居住分布와 生業에 관하여 살펴 보았거니와, 當時의 在唐 韓國人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즉 그들의 人性的 特性(能力과 性品)은 어떠한가를 「行記」에 記錄된 斷片的인 內容을 통하여 究察하기로 한다.

日僧 圓仁이 目睹하고 直接 交際하였던 當時의 韓國人들은 흔히 日人 學者들에 의해서 描寫 내지는 示唆된 進取性이 없고 不遇하고 나약한 人物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積極적이고 豊裕하고 또한 誠實한 人物들이었다.

「行記」에 나타난 韓國人은 무엇보다도 優秀한 海上活動能力을 所有한 進取的인 人物들이었다. 그것은 우선 日本의 所謂 承和入唐朝貢使船團의 構成員 中에는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는 相當數의 韓國人이있었다는 事實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즉 續日本後紀 承和元年 1月 18日條에는 入唐朝貢使節團員에 任命된 39名의 官吏·學者의 이름이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全員이 入唐한 것은 아니었다. 圓仁은 「行記」에 그 中 18名의 이름만을 記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우리의 關心을 끄는 遣唐使의 下級幹部職에 屬하는 32名의 이름도 記錄하고 있다. 그들은 航海나 在唐 外交折衝 등의 實務面에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였던 人物들이다. 그 中에는 知乘船事라는 職名이 보인다. 이는 船舶管理官이라는 뜻으로 錄事·准錄事 보다는 下位職이다. 그들은 朝貢使節船團의 航路決定이나 行政的

30) 同書, 840年 3月 2日 「登州都督府…城南街東 有新羅館」

“ 3月 21日 「…齊後行卅里, 到青州府龍興寺宿…引向新羅院安置」

“ 4月 5日 「五日早發 西北行十里, 到長山縣…」

“ 4月 6日 「六日早發…向西下板方得 到醴泉寺…典座僧 引向新羅院安置」

31) 同書, 842年 5月 25日, 846年 4月 27日, 5月 1日, 6月 17日, 843年 1月 29日, 847年 6月 9日.

支配에는 關與하지 아니하였으나 渡海入唐時에 必要的 朝貢荷物에 관한 責任者였다.³²⁾

이 知乘船事 6名 중 3名이 大陸系 人物이며 그 3名 중 2名이 百濟系 移民의 子孫이라고 하며³³⁾, 그 중 1名은 後漢 皇帝의 後裔라 한다.³⁴⁾

3名의 大陸系 知乘船事는 大陸系인 故로 中國大陸의 特殊한 人文·地理에 관한 知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大使·副使·判官 다음가는 職位로 秘書官職인 「錄事」 6名이 「行記」에 보이는데 그 중 1名은 高句麗 移民의 子孫이라고 한다.³⁵⁾

日本 朝貢使節團 一行 中에는 紀春主(還俗僧 惠靈)을 包含한 4名의 日人 譯語의 이름이 보인다.³⁶⁾ 그런데 續日本後紀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類型에 屬하는 朴正長·金正男·道玄 등 3名의 新羅 譯語가 있었음을 「行記」는 記錄하고 있다. 그들은 日人 譯語들 보다 더 重要的 役割을 擔當하였다. 그들 3名의 新羅 譯語는 3隻의 日本遣唐船에 1名씩 分乘하여 日本을 出發하였는데 4隻의 日本의 遣唐船團 中 그들이 分乘한 船舶은 中國에 到着할 수 있었다. 그들 新羅人 譯語들은 單純히 通譯의 役割 뿐만 아니라 海路의 案內役割까지도 擔當하였으며³⁷⁾ 그들은 日人 通譯 보다 中國事情에 더 精通하였으므로 海外에서의 外交折衝도 大部分 그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³⁸⁾ 圓仁이 中國沿岸沖에서 搭거나 보고 들은 많은 船舶들은 中國과 日本間의 貿易에 從事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船舶들을 運航하였던 것은 中國人도 日本人도 아닌 韓國人이었고, 이들 船舶의 所有主나 많은 船員들의 國籍은 不明하나 그들이 登場하는 前後의 事情으로 미루어 그들 中의 大部分이 韓國系일 것으로 推測된다.³⁹⁾

日船에 의한 圓仁의 中國에로의 渡海와 그 후 山東沿岸의 航海에 있어서 日本遣唐使의 悲劇的인 航海技術上의 未熟을 告하는 많은 記錄⁴⁰⁾과는 對照的으로 山東沿岸을 容易하게 그리고 몇번이고 往復하여 送還하였고 마침내는 그를 無事히 送還하고 다시 無事히 돌아 올 수 있었던 在唐 韓國人들의 優秀한 海上活動能力을 日僧 圓仁은 「行記」에서 생생하게 證言하고 있다.⁴¹⁾

日本の 朝貢使 一行이 楚州에서 60餘名의 韓國人 船員과 9隻의 韓國船을 一時에 雇傭하지 않고서

32) Reischauer, Ennin's Diary pp. 8-9. Note 24, 26.

33) 續日本後紀 835年 11月 20日條「遣唐使知乘船事從八位上香山連清貞兄二人, 改連賜宿稱, 其先百濟國人也」
續日本後紀, 承和元年(839) 6月 辛丑(22日)「辛丑和泉國正五位下蜂田業師文主, 從八位下同姓安遊等賜姓深根宿稱其先百濟國人也」

34) 續日本後紀, 837(承和 4) 3月 5日條「右京人遣唐知乘船事槻本連良棟 民部少錄同姓豐額等, 賜姓安塚宿稱, 其先出自後漢獻帝後也」

35) 同書, 836年 4月 29日條「遣唐錄事高岑宿稱貞繼 改宿稱賜朝臣, 其先高麗人」

同書, 833年 10月 27日條「遣唐錄事松川造貞嗣, 散位同姓家繼等賜姓高岑宿稱, 其先高麗人也」

36) 同書, 836年 閏5月 13日條.

「行記」, 839年 4月 8日條.

38) 「行記」, 838年 6月 28日條「廿八日朝 鷺鳥指西北變飛, 風猶不變, 側帆指坤, 已時至白水, 其色如黃泥, 人衆咸云, 若是揚州大江流水, 令人登桅子見申云, 從戌亥會, 直流南方, 其寬廿餘里, 望見前路水還淺綠, 暫行不久, 終如所申, 大使深在海上還爲淺綠, 新羅譯語 金正男申云, 聞尋揚州掘港難過, 今既臨白水, 疑踰掘港賦, ...」

38) O. E. Reischauer, Ennin's Travels, p. 266.

39) 「行記」, 839年 1月 8日, 842年 4月 27日, 5月 25日, 845年 9月 22日, 846年 2月 5日, 4月 27日, 847年 6月 9日條.

40) 同書, 838年 6月 28日, 29日條.

41) 同書, 842年 5月 25日, 847年 9月 2日~3日條.

는 歸國의 安全航海를 期할 수 없었던 事實은 當時의 韓國人과 日本人과의 航海技術上의 差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例證이 될 것이다. 그 후 高麗朝의 成立을 前後로 하여 漸次로 「바다를 잊어 버린 民族」이 되어 內陸指向의 으로서만 認識되어 왔던 우리 民族이 實際로는 적어도 그 當時에는 極東의 制海權을 掌握하고 있었음을 한 日本의 入唐求法僧이 그의 體驗日記를 통하여 우리에게 證言하고 있는 것이다.

「行記」가 左唐韓國人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또 하나의 事實은 그들이 海外的 異國環境에 대하여 柔軟하고 卓越한 適應能力의 所有者이었다는 것이다.

山東의 沿岸地域에 居住한 新羅人 社會를 專擔(勾當)하는 機關인 「勾當新羅所」가 縣廳 所在地인 文登縣 縣城 밖 70里에 別途로 所在하였고 이 機關을 新羅人 張詠이 管掌하였다.⁴²⁾ 張詠은 勾當新羅所의 押衙(長)인 同時에 平盧軍節度同十將 兼 登州諸軍事押衙와 新羅通事押衙 등의 職務를 兼攝하였으며 赤山地方의 新羅人 社會의 宗教的·精神的 中心地이었던 赤山法花院을 管理하는 3人 中的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⁴³⁾ 赤山地方에 散在한 韓國人의 各 村鄕은 韓國人의 村長에 의하여 管掌되었으며⁴⁴⁾ 新羅人을 統轄하는 機關의 長이라는 뜻을 가진 「勾當新羅所押衙」는 그 名稱으로 보아 山東의 沿岸 赤山地方의 新羅人의 村鄕 全體를 統轄·代表하는 職名임이 分明하다.

이와 같이 唐의 一般行政區域과는 獨立된 韓國人만으로써 構成된 社會의 組織만을 보아도 當時의 在唐 韓國人 社會는 어느 程度의 自治權을 唐政府로부터 獲得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行記」에는 이를 示唆하는 事實이 記錄되고 있다. 가령, 圓仁은 唐官憲의 強制出國命을 받고서도 이에 不應하고 唐土에서의 求法을 위하여 韓國人 社會속에서 隱身함으로써 그의 求法의 念願을 이루려고 하였다는 事實⁴⁵⁾, 圓仁 一行이 官의 許可없이 上陸한 후 韓國人 行勢를 하면서 旅行하려고 하였던 事實⁴⁶⁾ 등이 그것이며, 圓仁 一行의 唐에서의 不法인 滯留生活이 可能하였던 것은 全的으로 張詠 등 在唐 韓國人 社會의 庇護때문이었다.

한편 圓仁이 旅行하였던 南쪽의 內陸地方에 居住하던 韓國人의 社會 즉 淮河下流 地域의 韓國人 社會의 中心地의 하나인 楚州에도 新羅坊이라고 불리는 在唐 韓國人의 特殊한 小區域이 있었다.⁴⁷⁾ 山東의 勾當新羅所의 長이 「押衙」인데 대하여 楚州·漣水의 新羅坊의 長은 「惣管」이라는 呼稱上의 差異가 있으나 赤山의 張詠이 「勅平盧軍節度使同十將」으로, 楚州 新羅坊의 惣管인 薛詮은 間或「惣管當州同十將」으로 「行記」에 記錄된 것으로 보아 「惣管」과 「押衙」는 對等한 位階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兩者가 다 韓國人이었다는 點에서도 共通的이다. 그러므로 楚州의 韓國人 社會도 山東의 沿

42) 同書, 845年 8月 24日「廿四日, 到文登縣, …入縣見縣令, 請往當縣東界勾當新羅所求乞以延唯名, 自覓舟, 却歸本國, 長官准狀聽, 送勾當新羅所, 去縣東南七十里, 管文登縣 青寧縣」

同書, 845年 8月 27日條「廿七日到勾當新羅所, 來平盧軍節度同十將兼, 登州諸軍事押衙張詠, 勾當文登縣 界新羅人戶到宅, 相見便識, 存問慰懃」

43) 同書, 839年 6月 7日條「…到赤山東邊泊船, …其赤山純是巖石高秀處, 卽文登縣清寧鄉赤山村, 山裏有寺名 赤山法花院, 本張寶高初所建也, …當今新羅通事押衙張詠, 及林太使王訓等專勾當」

44) 同書, 839年 5月 1日條「遣買過海糴於村勾當王訓之家, …」

同書, 839年 4月 5日條「…申時到宿城村新羅人宅, …爰村老(長)王良書云, …」

45) 同書, 839年 4月 29日, 5月 1日條.

46) 同書, 839年 4月 5日條.

47) 同書, 847年 7月 3日條.

海岸地方의 韓國人 社會처럼 어느 程度의 治外法權의 自治權을 享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漣水에도 「新羅坊」이 있었고 韓國人의 「惣管」에 의하여 管掌되고 있었다 함은 既述한 바이지만, 漣水의 新羅坊 社會도 어느 程度의 自治權을 所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唐武帝의 有名한 佛敎彈壓政策의 結果로 日僧 圓仁에게 國外追放令이 내려졌던 森嚴한 狀況下에서도 萬若에 漣水 新羅坊人이 圓仁 一行을 新羅人 社會의 一員으로서 容認한다는 誓約書만 提出한다면 그들 日人의 不法的인 中國滯留를 默認하여 주겠다고 中國官憲이 約束한 事實이 立證한다.⁴⁸⁾

이로 미루어 적어도 山東으로부터 楚州·漣水·揚州에 걸쳐 分布되었던 韓國人 社會에게는 그것이 內陸定着者이건 沿海岸의 貿易從事者이건 간에 同一한 自治權이 許容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自治權의 許容은 勿論 唐의 國際的 性格에서 온 開放政策에 起因된다고 하겠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自治權의 許容은 在唐 韓國人에 대한 唐政府의 信任없이是不可能할 것이며, 또한 唐政府의 信任은 在唐 韓國人들이 海外에서도 卓越한 能力을 所有하였음을 前提로 하여서만 비로소 可能하였을 것이다. 日本의 遣唐大使 藤原常嗣가 唐의 皇帝에게 正式으로 請願하였으나 拒絕 당한 圓仁의 唐土 旅行許可書(公驗)를 成功으로 받아냈던 在唐 韓國人의 能力은 異國生活環境에 대한 그들의 適應能力의 柔軟性和 卓越性を 보여주는 한 例證이다.⁵⁰⁾

圓仁이 만났던 在唐 韓國人들은 한결 같이 弱者나 困窮者에 대하여 誠實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行記」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在唐 韓國人에 관한 「行記」의 거의 모든 記錄을 통하여 困窮에 處한 異國의 求法僧 圓仁 一行에 대한 在唐 韓國人들의 깊은 同情과 好意가 넘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楚州 新羅坊의 惣管 劉慎言⁵¹⁾과 薛詮⁵²⁾, 漣水縣의 崔暈第十二郎⁵³⁾, 山東의 勾當新羅所 押衙 張詠⁵⁴⁾, 赤山 法花院 住持僧 法清⁵⁵⁾, 長安의 左神策軍의 將校 李元佐⁵⁶⁾ 및 圓仁 一行이 淮河의 北쪽 河口에서 偶然히 만났던 木炭運送業에 從事하던 10餘名의 船員⁵⁷⁾들에 이르기까지 中國에서 彷徨하는 異國의 求道僧 圓仁 一行에게 精神의 好意와 物質的 援助를 배운 韓國人

48) 845年 7月 9日 「…仍作狀入縣長官, 請停泊當縣新羅坊內, 覓船歸國, 長官相見, 哀恤喚祇承人處分, 令勾當茶飯飲食, 且令將見長官, 問云, 新羅坊裏, 曾有相識, 答日, 緣開成四年 日本國朝貢使 從楚州發歸國時, 皆於楚州及 當縣抽人, 的令有相認, 長官處分, 祇承人云, 領, 和上到新羅坊, 若人識認, 卽分付取領狀來, 若無人認, 卽去領和上來, 便共使同到坊內, 惣管等擬領, 別有專知官不肯, 所以不作領狀, 却到縣中, 長官判, 權於太善世安置…」

49) 唐戶令은 異民族의 唐에의 移住者에 대하여 「諸沒落外蕃得還, 及化外人歸朝者, 所在州鎮, 給衣食, 具狀送奏聞, 化外人於寬鄉附貫」(仁井田陞, 唐令拾遺, P. 715,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4. p. 3) 이라 하였고, 唐賦令은 「諸沒落得還者, 一年以上復三年, 二年以上復四年, 三年以上復五年, 外蕃投化者復十年」이라 하였다. 또 「外國人은 一般의 中國人과 私貿易을 行할 수 있었고 또 中國人과 通婚할 수 있으며, 同類의 外國人間의 繫爭은 그들의 本國法을 通用받았다」고 하여 外國에서 歸來한 者를 優待한 唐의 開放性의 一端를 엿볼 수 있다(全海中, 前揭書, pp. 2~4).

50) E. O. Reischauer, Ennin's Travels, pp. 96~100.

51) 「行記」, 839年 3月 24日, 842年 5月 25日, 845年 7月 3日, 9月 23日, 846年 1月 9日, 6月 17日, 847年 6月 5日, 6月 9日條.

52) 同書, 845年 7月 3日, 9月 23日, 847年 6月 9日, 10日條.

53) 同書, 839年 6月 27日, 28日, 840年 2月 15日, 845年 7月 9日條.

54) 同書, 840年 1月 20日, 21日, 2月 1日, 14日, 17日, 20日, 24日, 845年 8月 27日, 847年 1月, 閏 3月 1日, 2日, 6月 10日, 21日, 8月 9日條.

55) 同書, 839年 7月 28日, 840年 2月 17日條.

56) 同書, 843年 8月 13日, 845年 5月 14日, 15日條.

57) 同書, 839年 4月 5日條.

은 이루 다 枚擧할 수 없이 많다. 더구나 圓仁 一行에 대한 在唐 韓國人들의 好意와 援助는 平和롭고 豊饒로운 時代만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唐武帝의 무서운 宗教的·政治的 彈壓이나 兇年이라는 어려운 狀況 밑에서도 배풀어졌던 것이다. 이는 在唐 韓國人들의 따뜻한 心性和 굳은 信義를 말하여 준다.

赤山 法花院의 講筵에 모인 男女道俗·老少尊卑·有緣施主의 數가 講筵 最終日의 2日間에 적어도 450名이었다 함은 既述하였거니와, 이만한 信徒數는 赤山 地方居住의 韓國人 社會의 規模를 짐작케 하여 倣과 同時에 그들 在唐 韓國人들이 篤實한 佛教信者이었음을 보여 준다. 赤山 法花院은 淸海 鎮 大使 張保舉가 寄贈한 年收 500米石의 收入이 있는 莊園을 所有한 寺院으로서 24人의 僧, 3人의 尼僧, 2人의 老婦가 常住하고 있었다고 하니⁵⁸⁾ 이만한 赤山 法花院의 規模도 當時의 在唐 韓國人들의 篤實한 信心을 말하여 준다고 하겠다. 圓仁 一行에 대한 在唐 韓國人들의 好意와 援助는 어떠한 政治的·經濟的인 打算에서 보다는 그들이 篤實한 佛教信者이었다는 事實에서 그 理由를 찾아야 할 것이다.

〔行記〕는 赤山 法花院에서의 韓國人들의 生活이 行政上의 職位에 의한 權威主義에 의하지 않고 個人의 人格을 尊重하는 平等主義思想에 의하여 民主的으로 營爲되고 있었음을 示唆하여 준다. 즉 이 僧院의 役職은 1年 마다 輪番으로 交替하여 赤山 法花院 僧侶가 맡았으며 沙彌僧(見習僧)에게도 役職의 하나가 주어졌다는 것⁵⁹⁾, 上座高僧이라 할지라도 다른 一般 僧尼와 같이 부엌에서 일하며 僧院의 倉庫에 薪炭이 떨어지면 僧院의 僧侶들은 老若을 不問하고 上座高僧을 不問하고 總動員하여 薪炭木을 蒐集하러 나갔다는 것⁶⁰⁾, 衆僧이 佛前에서는 上·下의 區別없이 섞여서 禮拜드렸다는 것⁶¹⁾ 등의 事實은 赤山의 韓國寺院의 平等主義思想을 말하여 주는 例證이라 하겠다.

이러한 平等主義思想은 文殊師利菩薩의 神話的 教訓⁶²⁾이 示唆하듯이 僧俗·男女老少·貧富를 不問하고 사람은 다 平等하다는 佛教思想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平等主義思想은 다만 赤山 法花院의 僧侶社會의 生活精神에만 局限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大部分이 篤實한 佛教徒이었던 當時의 在唐 韓國人의 一般社會를 支配하고 있었던 生活倫理이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平等主義思想만이 在唐 韓國人 社會를 支配한 唯一한 生活原理는 아닐 것이며 平等主義思想과 더불어 在唐 韓國人 社會에는 秩序와 團結을 尊重하는 氣風이 確立되어 있었던 듯하다.

〔行記〕 839年 4月 6日條에

「未時，新羅人卅餘，騎馬乘驢來云，押衙潮落擬來相看，所以先來候迎，…不久之間，押衙，駕新羅船來，下船登岸，多有娘子」

58) 同書, 839年 6月 7日, 8日, 840年 1月 15日條.

59) 同書, 840年 1月 15日條「…赤山法花院常住僧衆及沙彌等名, 僧曇表, 僧諒賢, 僧聖琳, 僧眞智眞, 僧軌範(禪門), 僧頌證(寺主), 明信(去年典座), 惠覺(禪門), 修惠, 法清(去年院主), 金政(上座), 眞空, 法行(禪門), 忠信(禪門), 沙彌道眞(去年直戈), 師教, 詠賢, 信惠(住日本國六年), 融洛, 愔, 懷亮, 智應, 尼三人, 老婆二人」

60) 同書, 839年 9月 28日條「廿八日始當院收菟青蘿蔔, 院中上座等盡出揀葉, 如庫頭無柴時, 院中僧等, 不論老少, 盡出擔柴去」

61) 同書, 840年 正月 1日「早朝禮佛了, 不相拜謁, 直歸自房, 喫粥之後, 堂前禮佛行道, 禮佛了, 便於堂前, 衆僧同禮拜, 更互參差, 不依次第」

62) 同書, 840年 5月 17日, 7月 2日條.

라 記錄되어 있다. 이는 圓仁이 탄 日本 朝貢使節團의 船舶이 온갖 苦生 끝에 乳山浦에 겨우 닻을 내리고 停泊하고도 아직 上陸하지 못한 채 船上에서 말과 노새를 타고 온 30餘名의 韓國人을 보았을 때의 記錄이다. 그들이 이 곳에 모인 目的은 이 地方 韓國人 自治社會의 押衙(長)를 마중하기 위하여 미리 나온 것이다(所以 先來候迎). 그들이 말과 노새를 타고 올 정도의 먼 距離에서 그들의 自治團體의 長을 迎接하기 위하여 集合하였다는 事實은 그들 自治社會의 生活原理가 單純히 個人的 無制約의인 平等主義가 아니고 秩序와 團結을 尊重하는 氣風이 있었음을 示唆하여 주는 한 例證이다.

위에서 引用한 「行記」의 글 중 「多有娘子」의 「娘子」에 대하여 日人學者 今西龍은 遊女로 풀이한 바 있다.⁶³⁾ 그러나 「娘子」는 遊女가 아니고 押衙를 마중나온 良家 女性들이라고 풀이된다. 그녀들을 遊女로 본 理由는 儒敎的 規制로 外出과 男女의 同席이 極히 制約된 李朝時代의 士大夫집안의 女性처럼 當時의 在唐 韓國女性들의 行動도 極히 制約되었을 것으로 본 데 있는 듯하다. 그러나 山東의 赤山 法花院의 佛敎行事に 모인 男女 信徒에 관한 「行記」의 記事는 當時의 在唐 韓國女性들의 社會의 行動이 比較的 自由로웠고 적어도 佛敎行事に 있어서는 男性과 거의 同等하였던 듯하다. 즉

「行記」839年 11月 16日條에

「十六日，山院起首，講花經，限來年正月十五日爲其期，十方衆僧及 有緣施主皆會見，…

男女道俗同集院裏，白日聽講，夜頭禮懺聽經及次第，…」

라 하여 男女가 다 같이 寺院에 모여 낮에는 聽講하고 밤에는 禮懺·聽經하였다고 한다.

「行記」840年 正月 15日條에

「此日，山院法花會畢，集會男女昨日二百五十人，今日二百人，結願已後，與集會衆薩菩戒，齊後皆散，…」

이라 하였다. 「昨日 二百五十人」과 「今日 二百來人」중에 女性의 數는 얼마나 되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多數의 女性信徒가 男性信徒와 差別없이 모여 菩薩戒를 받고 돌아 갔음을 말하고 있다.

「多有娘子」도 佛敎行事に 自由롭게 參與하였던 女性들과 同一한 現象 즉 그들 社會의 長을 迎接하는 行事に 參與하였던 良家의 女性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自然스러운 것이다.

赤山 法花院의 平等主義와 더불어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그들의 佛敎儀式이 極히 적은 部分을 除外하고는 「韓國語로，韓國의 習慣에 따라」行하여 졌다는 事實이다.⁶⁴⁾ 이는 그들이 佛敎儀式 만을 韓國式으로 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一般社會生活에 있어서도 그들의 固有한 言語와 風俗를 지켜 나가려는 民族的 主體意識을 가졌음을 짐작케 하여준다.

Ⅳ. 結 言

한 日本의 入唐求道僧이 쓴 旅行日記에 斷片的으로 그리고 客觀的으로 言及된 在唐 韓國人에 관

63) 今西龍, 慈覺國師入唐求法巡禮行記를讀みて, 新羅史研究 今西龍遺著刊行會, 昭和 45. p. 336.

64) 「行記」, 839年 11月 16日條 「…其講經禮懺, 皆據新羅風俗, 但黃昏寅朝二時禮懺, 且依唐風, 自餘拈依新羅語音, 其集會道俗, 老少尊卑, 惣是新羅人, …」
同書, 11月 22日條 「赤山講經儀式, …大衆上堂, 方定衆鍾(了), 講師上堂, 登高座問, 大衆同音, 稱嘆佛名, 音曲一依新羅, 不似唐音, …」

하여 이 小稿는 그들의 居住分布와 生業 및 그들의 人性的 特性 등을 살펴본 셈이다. 그러나 이 小論은 여러모로 不充分하고 많은 缺陷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故國을 떠나 異國에서 살던 韓國人들의 活氣차고 誠實한 삶의 한 斷面과 눈부신 海事活動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海洋民族으로서의 片鱗을 浮刻하는 데 이 小論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가 있다면 多幸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可能性을 일깨워 주는 9世紀 當時의 在唐 韓國人들은 어떠한 理由로, 어떠한 經路로 中國땅에 定住하게 되었는가, 極東의 海上權을 잡고 있었던 그들은 그 후 어떠한 運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등의 문제는 이 小稿에서는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앞으로의 課題이다.

參 考 文 獻

-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大日本佛教全書 第113卷 遊方傳業佛書刊行傳, 大正 4年.
- E. O. Reischauer, Ennin's Diar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Law. The Ronald Press Co., N. Y. 1955.
- E.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 Y. 1955.
- 田村完誓譯, 世界史上의 圓仁——唐代中國への旅——, 實業之日本社, 1963.
- 足立喜六, 鹽入良道補注, 圓仁著, 入唐求法巡禮行記 1, 東洋文庫 157, 平凡社, 昭和 52年, 東京.
- 金文經, 左唐新羅人의 集落과 그 構造, 韓國史學論叢, 1969.
- " 赤山法花院의 佛教儀式, 史學志, 第1輯, 1967.
- 續日本後紀, 國史大系編修會編輯, 吉川弘文館, 昭和 53.
- 今西龍, 慈覺國師入唐求法巡禮行記를讀みて, 新羅史研究 今西龍遺著刊行會, 昭和 4.
-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4.

